

브라질, 농산물수출 사상 최고

브라질의 2003년도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306억 3,898만 달러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의 41.2%에서 41.9%로 0.7%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에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47억 9,052만 달러에 그쳤다. 농산물 무역수지는 27.0% 증가한 258억 4,847만 달러로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이 증가한 요인은 국제가격 상승과 신규시장 개척을 들 수 있다.

1. 주요 수출품목과 수출국

농산물 수출내역을 보면, 먼저 대두 및 대두가공품이 전년에 비해 35.2%나 증가한 81억 2,537만 달러로서 농산물 전체의 26.5%를 차지하였다. 품목별로는 대두가 41.5% 증가한 42억 9,044만 달러, 대두박이 18.4% 증가한 26억 237만 달러, 대두유가 58.4% 증가한 12억 3,255만 달러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대두 다음으로는 식육 수출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식육류 중에서 품목별 내역을 보면, 닭고기 수출액이 전년대비 28.1% 증가한 17억 974만 달러, 동 수출량은 20.1% 증가한 192만 2,000톤, 소고기 수출액은 48.7% 증가한 11억 5,451만 달러, 동 수출량은 44.1% 증가한 62만 톤, 돼지고기 수출액은 12.2% 증가한 5억 2,658만 달러, 동 수출량은 2.0% 증가한 45만 8,000톤이었다.

주요 수출국은 전년과 거의 변화가 없으며, 닭고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홍콩, 일본, 소고기는 칠레, 러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돼지고기는 러시아, 홍콩, 아르헨티나 등이다.

2. 수출이 증가한 요인

먼저 대두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은 2003년도 브라질의 대두생산이 약 5,200만 톤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한 것과 미국에서 한발에 의해 생산 감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의 수요증가에 의한 국제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또한, 식육 수출이 증가한 요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브라질의 가축위생 상태가 양호해 진 것, 둘째 수출진흥사업단(APEX)의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이 국제견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 수출상대국에 대한 홍보가 주효하여 브라질산 식육의 수출시장을 확대한 것, 셋째 2대 소고기 생산국인 미국과 호주의 공급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넷째 중국이나 EU에서 조류독감에 의한 영향으로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요가 높았던 점, 다섯째 수출상대국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 것, 여섯째 미국 달러화가 EU의 유로에 비해 하락, 달러로 거래하는 브라질산 식육이 EU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진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2004년도 식육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브라질소고기수출협회(BIEC)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 브라질의 소고기 수출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소고기 수출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브라질닭고기수출협회(ABEF)는 아시아의 조류독감 영향으로 닭고기 수출은 적어도 10%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자료 : [http : //lin.lin.go.jp/alic/week/2004...](http://lin.lin.go.jp/alic/week/2004...)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